

2021 THEME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 I = Imaginative Ministry [창의적 사역]
- M = Making Disciples [제자 양육]
- P = Passionate Worship [열정적 예배]
- A = Action for the Gospel [복음의 실천]
- C = Community Outreach [이웃 섬김]
- T = Training Missionaries [선교사 양성] &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킴]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Fax: 949.854.4018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유아부(2-3세) / 본당 2층 영아부실, 온라인
9:00AM & 11:00AM
- 유치부(4-5세) / 유치부실(구식당), 온라인
9:00AM & 11:00AM
- 유년부(1-3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 11:00AM
- 초등부(4-6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온라인
11:00AM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온라인
9:00AM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온라인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현장예배, 온라인
11:00 AM
- 日本語 礼拝 / 현장예배, 온라인
1:30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us.cts.tv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TV 방송 (미주 CGN TV):
TV 채널 31.9 · 화요일/오후 2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일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히브리서 13:17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태복음 6:9-15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히브리서 강해(49) 목회자와 성도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주기도문 1 - 회년을 선포하는 기도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235/새20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찬245/새210장)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믿음 in '21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액추얼과 버추얼

Actual vs. Virtual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부활절 현장 예배의 감동이 한 주가 지나도 가지지 않습니다. 지난 1년 넘게 온라인 예배 생방송을 끝낸 후, 늘 텅 빈 교회 마당만 바라보며 액추얼 예배가 아니라, 버추얼 예배를 드린 것 같은 허전함이 있었는데, 지난 주일 부활절 현장 예배 후에는 “액추얼” 예배였음을 실감했습니다. 교회 마당에 마련된 [제이베네 카페]에서 제공되는 고급 커피와 따뜻한 햇살에 마당 가득 펼쳐 놓은 파라솔마다 삼삼오오 모여 담소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며 베델교회의 모습이 돌아온 것 같은 실제 “액추얼” 모습이었습니다.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것이 교회지!” 하시며 목은 답답함을 털어 버리는 듯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액추얼” 현장 공동체이지 “버추얼” 가상 공동체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서로의 접촉을 통해서 번져가는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예배도 현장 예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지만, 온라인 예배는 어디까지나 “버추얼” 대체이지 실제를 대신할 수 있는 “액추얼”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1년 넘게 온라인 예배가 지속하면서, 온라인 등록 교인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면예배를 드릴 수 없어 얼굴 한 번 대면해 보지 않고, 우리 교회 교인 된 분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타주에서 온라인 접속을 고정으로 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이 활발해지면서 ‘사이버 교회’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회자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온라인에서만 존재하는 사이버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 현장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만 접속이 가능한 사이버 교회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설교자나 예배 인도자들은 회중을 볼 수 없지만, 성도들은 화면으로 볼 수 있으니 큰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회의나 소그룹은 줌을 통해서 서로가 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다는 이점까지 누렸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버추얼 예배가 기술적으로도 정착이 되어가면서 현장 예배 시 교실 부족과 주차장 등 공간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부활절 현장 예배를 재개하면서 비대면은 대면의 전제 없이 불가한 것이며, 온라인은 오프라인의 대체가 아닌 임시대안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 초반에 소위 버추얼 성가대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라도 성가대를 할 수 있구나 싶었지만, 버추얼 성가대를 다시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가대원 한 분 한 분이 부른 노래를 모아서 결국 음향실에서 인위적으로 맞추어 내보내는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실제 같은 가상, 버추얼이지 실제, 액추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예배에 비교하면 그렇게도 좋았던 우리의 부활절 현장 예배는 버추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쓰면서 올라가 보았던 천국의 액추얼 예배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열릴 베델 현장 예배가 있어서 온라인 예배의 아쉬움을 극복하듯이, 우리 천국의 액추얼 예배가 있기에 오늘 현장의 아쉬움도 극복해 갑니다. 오늘 예배가 천국의 액추얼 예배에 가장 근접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The excitement of in-person Easter worship service still lingers after a week. For the past year, having virtual worship service felt empty whenever I stepped out to an empty courtyard after a live recording of worship service. Last Sunday, “Actual” worship service was realized with in-person Easter worship service. Seeing J. Bene Café providing gourmet coffee in the courtyard, gathering of people underneath the parasols that filled the courtyard to escape hot sun rays was an “actual” image that shows Bethel Church has returned. It was as if everyone was saying “This is church!” and letting go of their frustrations. It was confirmed once again that a church is an “actual” in-person community and not a “virtual” community. Virus outbreak that was spread through in-person contact forced us to close doors to in-person worship. The only replacement for the situation was online worship services. We realized that online worship service was just a “virtual” solution and could never replace the “actual” worship services.

We continued with online worship services for a year, and even had online registration of new members. Since we couldn't worship in-person, there are new members that we have never met face to face. There were even many out of state people registering as members. With the advancement of internet, ‘cyber church’ has become the thing. Even with all of the changes, I wondered if there could be cyber church that only exists online. With the pandemic situation, we have become a cyber church that can only be engaged online. Worship leader and preacher could not see the attendees, but the attendees had no problem since they could see them through a screen. There were even some advantages to having Zoom meetings since we were not limited by space. As we settled technologically into virtual worship, it seemed to solve our issues of parking and classroom shortages. However, as we reopened for Easter worship last Sunday, we realized that it is impossible to replace face to face with virtual, and online is not a replacement but a temporary solution to off-line.

We had virtual choir performances when we first began online worship. Initially it was amazing, and we thought this could be an option. However, we did not continue with virtual choir. After collecting all of choir members singing, they had to be edited individually in the studio. As stated, it was virtual and not actual.

Our wonderful in-person Easter worship was nothing short of a virtual worship when compared to worship in heaven. The actual worship that Apostle John saw while writing Revelation has been promised to us. Because we know that one day Bethel worship will be in-person, we were able to persevere through online worship. In the same way, because we will have actual worship in heaven, we are able to persevere through today. I pray that today's worship will be the closest to the actual worship in heaven.

코로나 숲을 뚫고 가는 로드맵

히브리서 강해

주일설교시리즈 제 49 편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목회자와 성도

(히 13:17)

1. 설교 말씀을 듣기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적용하기



2. 아래 구절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유익을 주었던 경험을 나눠 보십시오.

- 모든 ()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하니(딤후 3:16)

3. "인도하는 자들"(17절)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아래 구절을 참고하여 답해 보십시오.

- ...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 하셨느니라(행 20:17, 28)
-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로 삼으셨으니(엡 4:11)
-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과 ()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딤후 5:17)

4. 순종/복종해야 할 2가지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 적어 보십시오.

1) _____ (17b, 참고/ 약 3:1)

2) _____ (17c, 참고/갈 6:7-8, 요삼 1:4)

■ 적용찬양: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235/새20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찬245/새210장)

부활 주일 현장 / 영어교회(BGC)와 예술청년

Rejoice! Rejoice in you ~ ~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지난 주일 교회 뜰에서 드린 부활주일 예배는 165명의 성도님들이 참석한 너무도 특별하고도 귀한 현장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일년만에 성도님들이 함께한 예배는 설렘과 감동, 감사의 시간이었으며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고 뜨겁게 채워주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었는지 모두에게는 특별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참석 인원이 적지만 주일 아침 10시 30분에 드리는 영어교회의 현장 예배와 동시에 온라인 예배도 변함없이 지속됩니다. 물론 Facebook Live와 Youtube Live를 통하여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참석도 가능합니다. 성도님들의 50%만 현장예배로 오픈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 예배시간도 늘려 갈 예정입니다.

베델 영어교회(Bethel Grace Church)에서는 많은 일들이 시작되고 있으며,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어교회의 제자훈련은 화요일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지난 일 년 동안 주중에는 온라인 셀모임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대학부 모임 또한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Zoom으로 함께했고, 곧 오프라인 모임을 가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팬데믹 동안에도 꾸준히 어려운 이웃을 섬김으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노방전도를 계획 중에 있으며, 오렌지카운티 Food Bank에서 자원봉사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편부모 자녀들을 돕기 위해 아기용품을 모아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고, 여성들이 도움을 청하는 보호소 쉼터에 계신 35명의 자매들에게는 식사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할지 기도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필요한 장소로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예배와 섬김의 감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서로를 돌아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Justin Kim 목사, Dan Nam 목사(BGC)

예배 구경꾼에서 예배자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상합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사하시려 하느 영광 버리신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그리스도를 목상할 때 그 십자가 아래에서 구원받아야 할 내 자신의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은혜로 새 생명 입은 나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사는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입고 살 수 있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절 행사와 예배에 그저 참석하기만 하고, 기분 좋게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철없는 저의 모습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새 생명으로 주의 은혜와 더불어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며, 은혜로 사는 오늘의 삶이야말로 부활임을 믿으며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허훈 형제(예술 청년)

돌들까지도 외치리

현장 예배가 오픈이 되면서 모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부활주일 예배는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며 더 특별했습니다. 갑갑했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성령님이 채워주셨고, 예배를 통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깊이 목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알면서도 종종 잊어버린 삶을 살아온 나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마음과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를 더 깊이 마음에 간직하며, 항상 말씀과 기도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찬양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예배로 드러짐에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새아 자매(예술 청년)

특별 예배 / 성금요일 예배

다 이루신 그분.. 예수

온라인 고난주간 특별새벽집회는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예수님의 순종과 섬김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성금요일 예배와 성찬식으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 특별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대속하여 주신 죄들의 유혹에 오늘도 여전히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함을 아시기에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올라'는 목사님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함을 넘어, 모멸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사모하며 기쁨과 영광 올리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일 년여 동안 삶과 관계에서의 불편, 불안, 두려움을 새로운 통로로 보수해 열어주신 베델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부어주실 풍성한 은혜를 소망 중에 기대합니다.

조원태 장로

성금요일의 이른 새벽, 내 발걸음은 베델 성전으로, 그리고 마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는

갈보리 골고다의 언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팬데믹의 혼동 속에서 성금요일 예배와 성찬의 의미는 나를 십자가 앞으로 다시 불러주시는 사랑이며 은혜였습니다. 거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귀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한 동정심이 아닌,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올라가는 말씀에 진정한 회개와 눈물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숲을 지나 베델의 가족들이 다함께 모여 성찬의 떡을 나눌 그 날을 설렘으로 기대해봅니다. 사랑의 이유이신 십자가와 예수의 삶과 피를 기념할 가장 아름다운 베델의 예배를..

홍소연 집사

처음, 믿음으로 부활절 예배에 VIP를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듯합니다. 월요일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과정을 말씀으로 들



으며 내가 느끼는 이 사랑을 나의 VIP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현장예배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VIP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부활절을 기쁨으로 기다리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의 VIP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함께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구주로 영접할 때까지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강엔젤라 집사



예수님 마음,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찬455장)는 저희 셀의 주제곡입니다. 초기 셀목자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은 이 찬양의 제목을 응용해 "예마본"(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셀이 탄생하게 하였고 그 후로 저희 셀은 여러 성도님이 오가며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시간이 흘러 예마본2 셀이 생겼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하는 셀식구들이 늘어나면서 열매 맺는 기쁨도 주셨습니다.

현재 다섯 가정의 모여있는 예마본 셀은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셀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각기 제 길로 가는 양들이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강과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기간에 만날 수는 없지만 Zoom 앞으로 모인 각 가정의 깊은 사정을 아시듯, 때 시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은혜로 채워 주셨고, 간증을 통해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셀가족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되새길 때, 주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셀식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빛나는 형상을 볼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분가할 예마본 셀들을 마음에 그려 보니 기쁨이 넘치며, 더 많은 성도를 이끌어 갈 셀목자들을 생각하니 끊임없이 확장되어가는 주님



의 나라가 기대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널리 선포하는 베델 교회의 셀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김현일 집사

<베델 탐방 - 첫번째>

김토성/김호성 집사

현재 건강 상태와 어떤 치료과정이 남아 있으신지요?

장기 입원 끝에 작년 4월 집으로 돌아온 이후 많이 회복되어, 현재는 집 앞 산책이 가능한 정도가 되었고, 아직 하반신 말초 신경장애와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겪고 있지만, 기도해 주신 덕분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담낭 제거 수술 부작용으로 미뤄졌던 2차 항암 치료가 지난 1월부터 시작되어 한 달에 한번 혈액검사와 항암 치료를 받으며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걸리는 2차 항암 치료는 담당 의사의 소견으로는 경과가 좋으면 1년 만에 마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2년 4개월여간의 치료과정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다면?

백혈병을 얻고, 수술 부작용으로 사경을 헤매던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고난으로만 멈추지 않은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투병

과정속에 더 깊이 만날 수 있었던, 기막힌 기적들을 베풀어 주신 섬세하신 하나님, 또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주셨던 성도님들의 기도와 아낌없는 지원, 이 모든 것이 축복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김호성 집사님과 자녀들 소식도 알려주세요.

아내는 애너하임에 위치한 선교 단체에서 행정 및 재정 간사로 지난 1월부터 열심히 섬기고 있고, 큰아이는 작년에 조지아에 있는 한 크리스천 대학에서 원하던 동물과학(Animal Science)을 공부하며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패션 디자인 전공을 희망하고 있는 작은아이는 올여름 대학 입학 준비중입니다.

앞으로의 비전과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를 가족처럼 여기고 눈물로 기도해 주신 한 분 한 분, 어려움 중에 처한 저희를 위해 나누고 베풀어 주신 사랑 모두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다면,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복음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이를 위해 무슨 사역을 하든, 어떠한 모습이든 지금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김토성/김호성 집사 가정은 2015년 11월 남아공 선교사로 파송 받아 첫 사역기간(5년)에 건강상의 문제로 귀국하셨고, 현재 선교사 직분은 내려놓고 휴직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치료에 집중하실 수 있으시도록 예방과 구제로 돕고 있습니다.

베델교육부



한어 중고등부 CIM을 소개합니다!

2021년 CIM 공동체의 가장 큰 영적 충전은 올해 첫주에 'I-TITUDE'의 은혜로 충만했던 열새였습니다. 선생님들의 격려 메시지로 듬뿍 응원받은 13명의 학생들이 함께 새벽을 깨우며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었던 열새기간 동안, 하루라도 더 예배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인도해 주셨던 선생님들과 팀장님의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작된 영적 파장이 모든 CIM 학생들의 삶과 공동체를 통해 '개인의 예배에서 우리의 예배'로 확대될 뿐 아니라 특히 온라인 예배에서 현장 예배로 옮겨가고 있는 요즘, 더욱 큰 감동이 CIM을 채우고 있습니다.

은혜로 허락된 영적 불씨는 행복한 만남과 나눔이 가득한 공동체의 시간으로 이어져 아이들의 삶을 듣고 기도하는 "일대일 수요 나눔" 시간, 큐티와 신앙의 질문을 함께 나누는 "금요 QT & Question 모임", 그리고 특별히 한 주제에 대한 "특강"과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찬양과 원 포인트 메시지로 드리는 "찬양예배", 큐티 본문과 함께 십자가 복음을 따르는 "주일예배"등 CIM의 많은 모임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모임은 온라인에서 진행되어 찾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로 아이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교회와의 연결을 이어갔었다면, 이제 시작되는 현장 예배와 모임은 CIM에 속한 모든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하는 사역이어서 더 많은 힘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CIM에서는 꿈꾸는 사역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 안에 뿌리를 내려 세상에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한 '제자 훈련'을 기도로 준비 중이며, 학생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인 진로에 대해서 관심분야의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며 꿈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교자 '휴먼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꿈꿀 수 있기에 행복한 CIM 공동체를 위해서 베델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형석 전도사(CIM)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정승락 목사
- 믿음 목장/예배/목회지원: 김형균 목사
- 소망 목장/선교: 주성필 목사
- 사랑 목장/훈련/베델뉴스/기도: 이충경 목사
- 은혜 목장/전도/이웃사랑: 김홍식 목사
- 화평 목장/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 새가족/경조: 한순고 전도사
- BGC: Justin Kim 목사
- BGC(Family):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 예수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 예수채플(청년): 서찬석 목사
- 예수채플(청년): 김유미 전도사
- 영어고등부: 여옥계(John) 목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 교회학교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 초등부: 김은정(Jamie) 전도사
- 유치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유아부: 정가영(April)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 지휘자: 박정영, 차은하, 이사무엘
- 오케스트라: 박정영
- 피아노: 신현진, 지지영, 한현미, 이해경
- 오르간: 이정은, 이해경, 박정연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한어권: 정티나 간사
- 아기학교: 이제나(Jenna) 전도사
- 유년부: 김재은 간사
- 한어중고등부: 김소영 간사
-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종형, 장석영, 김지현
- 디자인: 박선경
- 웹: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새가족 환영회

할렐루야! 베델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팬데믹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웠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베델교회에 새가족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지난해부터 등록하시고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마치신 여러분들을 베델의 가족으로 맞이하는 새가족 환영회에 초청하고자 합니다.

27년 전, 주일 아침 베델 교회를 찾아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본당 문을 들어서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예배의 감격과 따뜻함은 이루 말할수 없었습니다. 현재 사역팀원들과 함께 기도하며 새가족팀을 섬기는 동안 팬데믹으로 정체된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한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배웁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먼저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새가족 담당 한순고 전도사님과 담임목사님, 그리고 저희 새가족 사역팀과 모든 성도님의 사랑을 모아 베델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이민 생활의 부족함을 채워드리는 영적인 행동하심과 신앙의 정수를 누리게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고 귀한 열매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베델의 성도님들께서도 뜻깊은 날을 기억해주시고 한마음으로 기뻐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17일 토요일 새가족 환영회에 베델의 가족이 되실 여러분들을 초청하오니, 꼭 기억하셔서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일시: 4월 17일 토요일 오후 5시
- ▶ 장소: 교회 본당
- ▶ 문의: 최주상 장로 (949)290-0727



예배 봉사자

강단꽃(4,5월) | 4/11: 정승락 4/18: 노성애, 정광묵 4/25: 강문구 5/2: 노성애

선교후원

- [팍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욱,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루마니아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과테말라 실버 | 유한성(유영옥)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경),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성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삼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류진, 온세상, 이희숙, 차은경, 김예평(길진명)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네이버스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리아 신학교, 한미가정상담소, GP미주본부, Good News Spreaders(GNS), JAMA,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베델교회 현장 예배 안내** 베델교회의 모든 주일 예배(1-4부)는 제한된 인원 안에서 현장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예배 신청은 매주 화요일 새벽 5시30분 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checkin, bkc.org).

- 주일 1부 예배: 오전 7시 (현장, 온라인)
- 주일 2부 예배: 오전 9시 (현장, 온라인)
- 주일 3부 예배: 오전 11시 (현장, 온라인)
- 주일 4부 예배: 오후 2시 (현장, 온라인)
- 교회학교(유아, 유치, 유년, 초등), CIM 및 BYM 중등부: 주일 3부(오전 11시)
- BYM 고등부: 주일 2부(오전 9시)

*모든 자녀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유아부 현장 예배를 참석하시는 부모님은 1, 2부 현장예배 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3부에 자녀와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별 예배에 방역을 실시합니다.

◆ **베델수요프로젝트** 4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베델의 수요 프로젝트 "베델이 간다"와 "베델 큐" 5회가 베델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김성균 집사 (949)838-4110

◆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팬데믹 가운데 온라인으로 등록하시고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자녀 포함)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를 엽니다. 베델교회의 사역과 목회자 소개, 그리고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시/장소: 4월 17일(토) 오후 5시, 본당
 문의: 최주상 장로 (949)290-0717, 이길수 집사 (714)328-3350

◆ **M 미팅 "선교사를 만나다" (베트남 편)** 선교지를 직접 방문 할 수 없는 상황에서 10주 운영플랜을 가지고 선교팀원을 모집하여 진행하는 온라인 선교가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와 성도를 온라인 화상으로 직접 소통하고, 기도하기 위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초대 선교사: 베트남 성결, 양선 선교사
 일시/참가 방법: 4월 16일(금) 오후 7시 30분-8시 30분, Zoom을 통한 온라인
 참여 신청 방법/문의: 홈페이지 등록, 주성필 목사 (949)333-9213

◆ **온라인 안경 선교 훈련 모집** 눈의 구조, 시력 이상 및 측정 검사에 대한 이론 교육과 선교 현장에서 직접 시력검사를 할 수 있는 실습 교육을 온라인 영상강의와 화상모임(Zoom)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4월 28일(수)-5월 19일(수) 7시 30분
 대상/등록 방법: 베델성도 누구나, 홈페이지 신청
 문의: 김창남 집사 (949)939-8239

◆ **카타콤기도회** "각 가정과 일터로 영적 카타콤이 되게 하라." 카타콤기도회가 4월 15일(목) 오전 10시, Zoom으로 모입니다.
 참여 Zoom 회의 ID : 935 9750 9413

◆ **교회학교 성경적 성교육 학부모 세미나** 혼탁하고 무질서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을 지켜나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학부모 세미나(온라인)를 마치신 분에 한하여 추후에 열리는 자녀 성교육에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등록 기간: 교회 웹사이트 (bkc.org), 4월 8일(목)-4월 18일(주일)
 문의: 안지호 팀장 jttid2006@gmail.com

◆ **2021 VBS Skit Team 모집**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Skit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베델 교회학교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상: 베델 교회학교 4-8학년
 오디션 날짜/장소: 4월 25일(주일), 베델교회
 등록 기간: 4월 11일(주일)-4월 18일(주일)
 문의: 이진아 전도사 Jinahyi@bkc.org

◆ **BYM 대학 진학을 위한 재정 세미나** 10-12학년과 학부모를 위해 대학 진학에 필요한 재정 정보를 나누는 세미나가 열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신청 방법 : 오늘(4월 11일) 오후 1시, 홈페이지 신청 (Zoom ID 455 791 0001)
 문의: 여옥제 목사 (818)270-5454

◆ **카페에서 판매 될 음식 재능 기부자 모집** 정성스런 홈페이지드 음식을 베델 카페에서 매주일 스페셜 메뉴로 한정 판매하고자 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재능 기부로 판매되어, 판매금 전액은 선교를 위해 쓰여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실내의 카페에서 사인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는 제공되지만 교회에서 조리는 불가합니다.(예: 포장된 샌드위치, 주먹밥, 김밥, 쿠키, 떡, 컵케익 등)
 문의: 변준호 장로 (949)607 9869

◆ **한국학교 온라인 여름캠프 등록안내** 베델 한국학교가 신나고 재미있는 2021년 여름 캠프를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흥미있고 실감나게 체험하는 여름 캠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방법/기간: 한국학교 홈페이지 bks.bkc.org, 4월 5일(월)-5월 9일(주일), 등록비: \$290 (5월 9일 이후부터 \$320)
 기간: 7월 12일- 8월 5일 (매주 월-목, 4주간) 오전 10시-오후 12시
 대상: Kindergarten(만 5세) 이상의 학생
 문의: 이석희 장로 (949)697-7606, 최문정 권사 (949)836-7687

◆ **미디어팀 봉사자 모집** 주일 온라인과 현장 예배의 음향과 조명, 카메라로 섬겨주실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원하신 모든 분들은 미디어팀에서 훈련과 교육을 시켜 드립니다.
 문의: 박주남 전도사 (949) 543-8336

◆ **강단꽃 봉헌** 주일 예배 강대상 꽃을 각 가정의 감사 혹은 추모로 봉헌하실 성도님의 신청을 받습니다.교회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원하시는 날짜와 성함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행정실 (949)854-4010

<p>베델뉴스 편집위원</p>	<p>■ 발행인: 김한오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 진: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p> <p>■ 기 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유미 권사, 김지연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p>	<p>◆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p>
-------------------------	---	--

Pastor and Church Members

(Hebrews 13:17)

1. Have you had an experience where it was difficult to listen to a sermon? Why do you think that was?

Apply to Life



2. Read the passage below and share your experience of how God's word benefited you specifically.

- All () is breathed out by God and () for teaching, for proof, for correction, and for training in righteousness (2Tim 3:16)

3. Specifically, who are the "leaders" (v.17)? Answer by referencing the passages below.

- Pay careful attention to yourselves and to all the flock, in which the Holy Spirit has made you (), to () for the church of God, which he obtained with his own blood. (Acts 20:17, 28)
- And he gave the apostles, the prophets, the evangelists, the () (Eph 4:11)
- Let the elders who rule well be considered worthy of double honor, especially those who labor in () and () (1Tim 5:17)

4. From the main passage, find 2 reasons for obedience.

1) _____ (17b, Ref: Ja 3:1)

2) _____ (17c, Ref: Gal 6:7-8, 3John 1:4)

■ Song in Response: Sing Them Over Again to Me(Hymn 235), Glorious of Thins of Thee are Spoken (Hymn 245)